

실상사 좌담회

6월, 지리산에서 평화를 말한다

종교인 뜻모아 '평화중심국' 만들자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53년, 6월 23일 남원 실상사(주지 도법)에서 평화를 주제로 한 강연 및 좌담회가 개최됐다.

한국전쟁 전후 이념대립으로 지리산에서 희생된 원혼들을 위로하기 위해 2001년 12월 16일 '생명평화 민족화해 평화통일 1000일 기도'에 이어 2002년 6월, 지리산에서 평화를 말한다'에는 원택스님(색연합 공동대표), 정해숙 인드라마생명공동체 공동대표, 전재성 박사(한국백암리성전협회장) 등 1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좌담회에 앞서 유승국 성균관대 명예교수(전 신진문화연구원 원장)는 '한국사상의 평화이념과 미래전망' 강연에서 "사회적 제도적 모순에서 오는 갈등이 있지만 이에 앞서 개인의 심리적인 갈등을 안정시키지 못한다면 연유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며 "실리(음)와 도덕(양)을 이원화하지 않는 음양조화의 원리인 한국의 사상으로 성실한 인간이 되는 '인간화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6월 23일 남원 실상사에서 열린 평화강연 및 좌담회에서는 '지리산'이 상징하는 여러 문제들이 신중히 논의됐다.

●지리산의 과거 현재 미래 좌담회의 첫 대문은 김지하 시인이 열었다. 김 시인은 "한국전쟁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전쟁과 지리산의 역사적 성찰부터 시작했다. 김 시인은 "한국전쟁이 우리의 논리나 뇌리, 글쓰기 속에 전쟁이라는 상흔을 남겼다"며 "나는 내가 아니고 너는 내가 아니다"라는 논리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법스님이 김 시인의 말을 받았다. 스님은 "지리산은 역사적으로 성산(聖山)이고 신앙이지만 이념대립으로 인한 갈등을 안고 있는 산이고, 현재는 생태나 생명에 대한 문제의식을 요구받는 산"이라며 "이런 지리산에서 평화를 주제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보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강연 및 좌담회의 성격을 설명했다.

김영호 교수(경북대 경제학과)도 "지금 어느 때보다 한반도에 전쟁 위험이 높다"며 "이런 때 지리산에서 생명 평화 사상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좌담회에 의미부여를 했다. 이부영 의원(한나라당)은 정치적인 문제로 지리산을 풀기 시작했다. 이 의원은 "지리산은 우리에게 '발등의 화두'를 제시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성하며 "국민이 조지화해 정부를 재직시키는, 국민이 중심이 되는 평화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흔들리는 한반도, 그리고 해법 찾기 좌담회는 지리산의 시·공간적 의미 찾기에 이어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14일 워싱턴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담긴 '추가적 조치'는 'additional step'이 아닌 'further step'의 의미"라고 규정하며 노 대통령의 방침을 평가절하한 뒤 "미국의 북한 군사 공격이 가능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각오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며 평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나타냈다. 김 교수는 일본의 현재 상황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김 교수는 "일본이 갈수록 보수화되고 군비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일본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전쟁방에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붉은 악마·촛불시위 평화운동과 접목

반핵반전 세계지식인 500인 선언 이끌어내야 생명평화캠페인 시민운동 의제로

좌담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김 시인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봤다. 김 시인은 "근본적인 문제를 찾지 않고 세분화된 논리(현안)만 해결하려 한다면 악순환이 계속된다. 현실적인 문제는 토론으로 결론을 내야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틀바꾸기를 요구했다.

유승국 명예교수(성균관대)도 "수단과 방법이 체(體)가 아니다.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어 있다"며 "모든 원리가 생명에 있고 그것이 존엄하고 신성하다는 것을 망각했다"고 말해 김 시인과 비슷한 접근 방식을 취했다.

●평화정착을 위한 실천과제들 사회를 맡은 강대인 대안문화네트워크 원장이 중심사례를 소개했다.

도법스님은 한반도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릴 것, 우리나라가 약소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것, 한반도 평화를 얘기하면서 집단간의 갈등과 대립을 중단해야 할 것 등을 제시하면서 "후진선에 국민 집단 명이 모여 전쟁반대와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 십만양병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시인은 "생명 평화 운동을 도덕적 가치에서 시민운동의 구체적 의제로 끌어내려야 한다"며 "붉은 악마나 촛불 시위에서 보여준 젊은 세대의 상상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평화운동과 접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범종교인 연대회의' 같은 단체를 만들고, 여기에 문화적인 요소를 가미한 '평화서명운동'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또 미국 일본 등 한반도 평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국가 의회에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현실적인 접근을 보였다.

김 교수도 "시민사회 종교단체들이 전 세계 지식인을 하나로 묶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계 지식인 500인 선언'을 이끌어 내는 등 한반도 반핵평화의 글로벌 컨센서스를 확산시키는 생명평화운동을 전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전쟁논리에 맞서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평화 허브 국가로 될 수 있기를 소망했다.

실상사=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박용범 인드라마생명공동체

한 회사원의 선택

자연의 품에서 쫓기는 삶 청산 "절반의 귀농이지만 참행복 느껴"

제12기 불교귀농학교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귀농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화로운', '경쟁', '사람답게', '즐거움'이라는 낱말이 전반에 걸쳐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삶이 조화롭지 않고 경쟁으로 치열했으며 사람답지 않아서 전혀 즐겁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듯합니다.

조화나 경쟁, 사람은 모두가 상대를 염두에 두는 말입니다. 삶의 모습이 서로 부딪힐 때가 힘들다는 것보다는 한 심정의 고백입니다. 불교의 연기법으로 보면 나와 이웃이, 자연이 하나, 한생명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시면서 말씀하신 탄생계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담안지(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를 풀이하면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삼계가 고통받고 있으니 온 세상의 모든 고통을 내가 마땅히 편하게 하리라'는 뜻입니다. 만사만물(萬事萬物)을 부처요, 법이라고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이해할 방도가 없으리라 봅니다.

남의 고통을 고통으로 바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에만 밝은 것은 나와 남을 하나가 아니라 둘로 보는 것입니다. 도법스님은 이를 두고 무지(無知)와 탐욕(貪慾)으로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만일 내 손에 움켜진 물건이 내 것이라면 그것 말고는 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 공기, 해, 땅, 나무가 없는 나를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함께 호흡하고 서로가 서로를 나눠가졌습니다. 내 몸 속에는 그 옛날의 모진 풍파나 드넓은 여름날 햇볕이 고스란히 녹아있습니니다. 잠깐 스쳐가면 바람, 못사람이 내뿜었던 소리의 울림까지 내 몸은 온통이 품고 있습니다. 모두가 참나오, 나 아닌 것은 하나도 없는 법입니다.

12기 교육을 수료한 학생 중 컴퓨터 관련분야에 오래 계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돈은 부족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같은 회사 바로 옆 자리에 앉은 동료까지도 경쟁자요, 잠재된 적으로 봅니다. 항상 쫓기는 셈이죠" 그 분은 이럴 마음으로 각비(僥非)! 그러니까 '이건 정말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 귀농을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수료하자마자 '이장'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밭을 매고 오후에는 생태마을을 땅으로 짚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스스로 반(半)귀농이라고 부르는 그는 요새 활활 날듯이 살맛이 난다고 합니다. 불교귀농학교 12기 동거회 일을 함께 하면서부터 서로 호응호제하는 그는 날보고 몇 번씩 말합니다.

"동생이 참 부러워. 젊은 나이에 벌써 귀농할 마음준비를 하고 있으니, 끔찍한 10여년이었던 뒤돌릴 수가 있다면..." 하지만 난 그가 부럽습니다. 이미 그는 평화의 세상 안으로 들어섰으니가 말입니다. 아직 아들과 아내와 함께 하지 못하고 가족도 반귀농이지만 이제야 참 행복을 맞본다는 그, 나는 그를 꿈꿨습니다.

"시민적 농민, 농민적 시민이 되어야 참귀농이라는 말을 들을 적이 있어. 자네도 그 자리에서 귀농한 셈이지 뭐야! 조금 더 수고해주시길 바라."

12기 교육을 수료한 학생 중 컴퓨터 관련분야에 오래 계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돈은 부족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같은 회사 바로 옆 자리에 앉은 동료까지도 경쟁자요, 잠재된 적으로 봅니다. 항상 쫓기는 셈이죠" 그 분은 이럴 마음으로 각비(僥非)! 그러니까 '이건 정말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 귀농을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수료하자마자 '이장'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밭을 매고 오후에는 생태마을을 땅으로 짚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스스로 반(半)귀농이라고 부르는 그는 요새 활활 날듯이 살맛이 난다고 합니다. 불교귀농학교 12기 동거회 일을 함께 하면서부터 서로 호응호제하는 그는 날보고 몇 번씩 말합니다.

"동생이 참 부러워. 젊은 나이에 벌써 귀농할 마음준비를 하고 있으니, 끔찍한 10여년이었던 뒤돌릴 수가 있다면..." 하지만 난 그가 부럽습니다. 이미 그는 평화의 세상 안으로 들어섰으니가 말입니다. 아직 아들과 아내와 함께 하지 못하고 가족도 반귀농이지만 이제야 참 행복을 맞본다는 그, 나는 그를 꿈꿨습니다.

"시민적 농민, 농민적 시민이 되어야 참귀농이라는 말을 들을 적이 있어. 자네도 그 자리에서 귀농한 셈이지 뭐야! 조금 더 수고해주시길 바라."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완본」과 그 「휴대용」 발간 안내

■ 육임을 알때와 모를때의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모를때: '... 무슨 일로 찾아왔을꼬 --?', 알 때: '() 일 때문에 왔구나!

모를때: '... 왜 일이 꼬였을꼬 --?', 알 때: 응, 전사귀(戰死歸)가 침범해서 꼬이는군!

모를때: '... 왜 병이 생겼을꼬 --?', 알 때: 응, 사기맞고 말을 못해 병이 되었구나!

■ 육임을 알면 이외 에도 지금 이 사람이 '무슨 귀신의 침범을 받고 있는지', '무슨 부정발미가 붙었는지', '누구 산소에서 탈이 났는지', '어떤 위화를 받아 병이 생겼는지', '지금 무슨 사정으로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를 미리 알게 되고 해소법을 쓰게 됩니다.

■ 육임을 알면, 또 '어떤 방위로 몇 일날 이사 시켜야 형편이 퍼질지', '문은 목적사가 언제 이루어 질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게 됩니다.

■ 먼저 말해 줄 내용은 앞면에 20여가지로 그날 만나(전화)시간마다 써져 있고, 문은 항목은 24가지로 뒷면에 딱 결정되어 있습니다.

■ 이 책 나온지가 3년이고, 면밀히 수정보완되어 그 정확도가 검증되어 있으며, 日語版까지 나와 일본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내용을 먼저 말할 수 있게 되려면 육임10년을 공부해야만 될 것이나, 공부하지 않아도 쉽게 정확한 말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책이어서 가격이 좀 비쌌습니다.

■ 이 책을 써보면 그 효과가 아주 커서 여러 측면의 도움이 있다는 것이 검증되어 있습니다.

■ 활인 천역자가 꼭 구비해 두어야 할 보서(寶書)임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완본 : 값 2,500,000원

계좌 : 우리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복문

휴대용 : 값 310,000원(각 旬별 전 6권 150×105×20mm)

- 육임래정비법 350,000원
●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완본 2,500,000원
● 육임래정비법 휴대용 310,000원
●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완본 일어판 272,000원
● 육임강의록 상 하 증보판 410,000원
● 육임 신수비결 300,000원
● 육임비요 형이상법 150,000원
● 육임운명 판단법 130,000원

- 육임세밀 정단법 100,000원
● 육임 비디오 강의(28개) 900,000원
●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완본 CD(ARA21 제후) 2,000,000원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부설 육임학당 호사숙 강의 접수중 (현 제 6기)1,500,000원
▶ 등록후 3개월 수강하고 회원육임고급강의를 본인 의사에 따라 매주 수요일 마다 오후 5시부터 3시간씩 계속 무료 수강하게 됩니다.

본 「수정 보완본」을 구입하시면 책 도착과 함께 육임 선생이 찾아가 2~3일간 체류하면서 이 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책이 비싼것이 아니라 활용 요령이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쓴 책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효 사

▶ 주문전화 02)993-8680